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I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엔비디아 시가총액 4 조 달러 돌파 등에 힘입어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9일(수) 미 증시는 트럼프 8개국 추가 관세 서한 발송 등 상호 관세 부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첫 시가총액 4조 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한 결과 3대 지수는 상승 마감(다우 +0.49%, S&P500 +0.61%, 나스닥 +0.94%).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에도 8개국에 추가로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호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필리핀 20%, 브루나이, 몰도바 25%,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스리랑카 30%, 브라질 50%). 특히, 지난 4월 10%의 보편 관세율만 적용했던 브라질에 대해 정치적인 명분을 이유로 40%p 인상한 50%의 상호관세율을 8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 국가별 상호관세 외에 전일 구리 50%, 의약품 최대 200%, 반도체 등 품목 관세 부과도 예고.

다만, 사실상 관세 유예 기간이 8월 1일까지 연장된 시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며, 향후 또 다시 유예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인식. 즉, 더 이상 관세를 증시 불확실성 요인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의미. 최근 감세안 통과, 관세 유예 기간 연장 등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재차 AI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 기술주 반등 속 이 날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사상 최초로 4조 달러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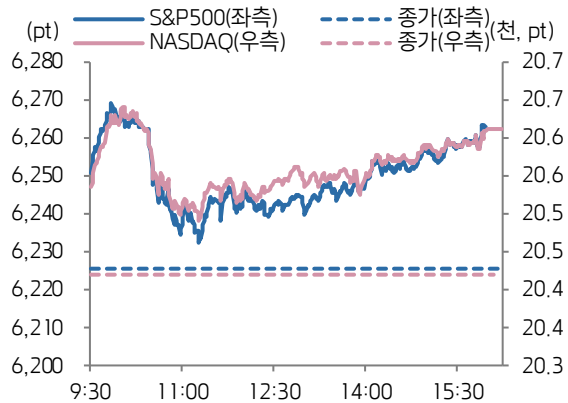
한편, 이 날 발표된 6월 FOMC 의사록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를 놓고 주요 연준 위원들이 상반된 의견들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특히,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소수파도 등장(보우먼, 월러 연준 이사로 추정). 다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위원들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영향을 확인한 이후 하반기 후반에 가서야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한다는 입장을 지지. 최근 비농업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폭 후퇴한 가운데 차주 15일 발표될 미국 CPI 데이터(컨센서스 2.7% vs 전월 2.4%) 중요도가 높아진 시점.

전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발 관세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도주(조선, 방산)가 양호한 주가 흐름을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 등 거버넌스 개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된 결과 양 지수는 상승 마감(코스피 +0.60%, 코스닥 +0.78%).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코스피 연고점 경신(3,133.74pt) 속 차익 실현 욕구 증가함에 따라 보험권 출발할 것으로 전망. 다만,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별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거나 정책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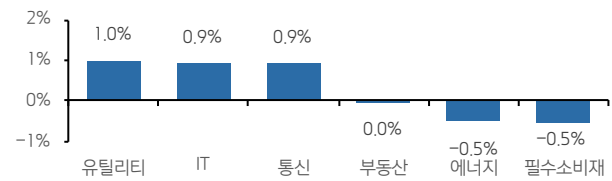
한편, 전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 등 25명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는 내용을 담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지난주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부 주도 하의 거버넌스 개선 정책 추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식시장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7월 이후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 개선 수혜업종인 지주, 증권 업종에 외국인 수급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7월이후 외인 지주 +2,100억, 증권 +1,100억 원 순매수). 향후 집중투표제 의무화, 배당소득분리과세 등 후속적인 거버넌스 개선 정책 추진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PBR 테마의 양호한 주가 흐름은 유지될 전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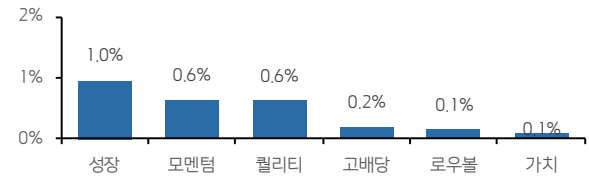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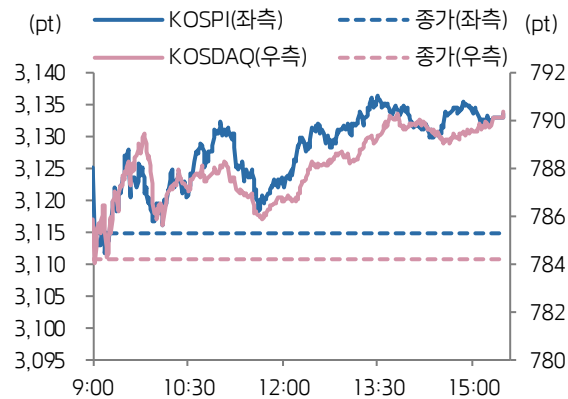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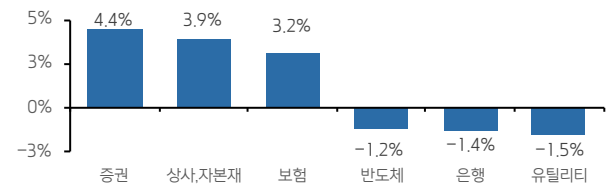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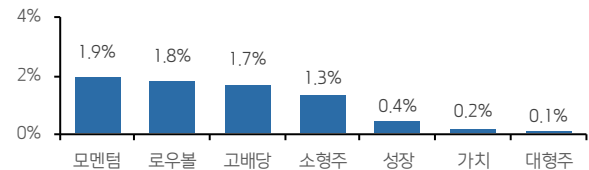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11.14	+0.54%	-15.48%	GM	52.57	+0.73%	-0.75%
마이크로소프트	503.51	+1.39%	+19.92%	일라이릴리	786.92	+1.19%	+2.32%
알파벳	176.62	+1.3%	-6.48%	월마트	96.81	-0.29%	+7.7%
메타	732.78	+1.68%	+25.36%	JP모건	283.16	+0.13%	+20.04%
아마존	222.54	+1.45%	+1.44%	엑손모빌	113.80	-0.34%	+7.72%
테슬라	295.88	-0.65%	-26.73%	셰브론	153.02	-0.14%	+8.12%
엔비디아	162.88	+1.8%	+21.31%	제너럴일렉트릭	96.81	-0.3%	+7.7%
브로드컴	277.90	+2.24%	+20.51%	캐터필러	402.18	+2%	+11.81%
AMD	138.41	+0.43%	+14.59%	보잉	226.60	+3.7%	+28.02%
마이크론	122.24	-1.75%	+45.57%	넥스트에라	73.65	+1.6%	+4.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133.74	+0.6%	+30.6%	USD/KRW	1,375.20	+0.15%	-6.6%
코스피200	422.02	+0.19%	+32.79%	달러 지수	97.52	+0.01%	-10.11%
코스닥	790.36	+0.78%	+16.54%	EUR/USD	1.17	-0.04%	+13.19%
코스닥150	1,287.71	+0.64%	+13.98%	USD/CNH	7.18	+0.01%	-2.11%
S&P500	6,263.26	+0.61%	+6.49%	USD/JPY	146.33	-0.17%	-6.91%
NASDAQ	20,611.34	+0.94%	+6.73%	채권시장			
다우	44,458.30	+0.49%	+4.5%	가격	DTD(bp)	YTD(bp)	
VIX	15.94	-5.18%	-8.13%	국고채 3년	2.475	-0.2bp	-12bp
러셀2000	2,252.49	+1.07%	+1%	국고채 10년	2.847	-0.5bp	-2.4bp
필라. 반도체	5,665.99	+0.44%	+13.78%	미국 국채 2년	3.843	-4.8bp	-39.9bp
다우 운송	15,902.51	-0.27%	+0.04%	미국 국채 10년	4.332	-6.7bp	-23.7bp
상해종합	3,493.05	-0.13%	+4.22%	미국 국채 30년	4.868	-5.6bp	+8.7bp
항셍 H	8,597.27	-1.28%	+17.93%	독일 국채 10년	2.673	-1.4bp	+30.6bp
인도 SENSEX	83,536.08	-0.21%	+6.91%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445.65	+1.37%	+11.23%	WTI	68.38	+0.07%	-1.6%
MSCI 전세계 지수	924.30	+0.54%	+9.86%	브렌트유	70.19	+0.06%	-5.96%
MSCI DM 지수	4,030.01	-0.13%	+8.69%	금	3,321.00	+0.12%	+22.23%
MSCI EM 지수	1,231.54	+0.44%	+14.51%	은	36.35	-0.33%	+24.31%
MSCI 한국 ETF	72.08	+0%	+41.64%	구리	544.35	-3.57%	+35.19%
디지털화폐				BDI	1,431.00	-0.35%	+43.53%
비트코인	110,758.79	+1.91%	+18.19%	옥수수	415.50	+0.3%	-6.37%
이더리움	2,739.28	+5.38%	-18.14%	밀	547.00	-0.14%	-5.85%
				대두	1,007.25	-1.01%	-1.76%
				커피	284.05	-0.54%	-5.9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